

바르바레스코의 시대가 왔다… 힘을 이긴 우아함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37

덜 달고, 담백하게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찾듯 와인 입맛도 바뀌었다. 기름기 많고 진한 소스의 음식엔 진득하고 묵직한 와인이 잘 맞았겠지만 이제 어떤 음식에도 마시기 편하게 힘을 내세우지 않고, 우아함과 균형감이 미덕이 됐다. 왕의 시대가 가고 여왕의 시대가 시작됐다.



이탈리아 와인너리 펠리세로를 이끌고 있는 지오르지오 펠리세로

이탈리아 와인너리 펠리세로를 이끌고 있는 지오르지오 펠리세로(Giorgio Pelissero·사진)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같은 네비올로 품종이라도 바르바레스코는 포도밭이 언덕에 위치하고 개방형 계곡에서 바람이 잘 불어 힘은 있지만 내세우지 않고, 우아한 와인을 만든다”며 “하지만 강한 지역이 바로 바르바레스코”라고 강조했다.

바롤로는 알아도 바르바레스코는 아직 접해보지 못한 이들도 많을 터. 둘 다 이탈리아 북서부의 와인 명산지 피에몬테에서 네비올로 품종 100%로만 와인을 만들다보니 비교해 이해하는 것이 머리에 더 잘 들어온다.

바르바레스코는 3개 마을이 전부다. 트레이소와 바르바레스코와 네이베다. 펠리세로가 자리잡은 트레이소가 그 중 크다지만 언덕 하나 정도라고 보면 된다.

바롤로는 일단 지역 자체가 더 넓다. 11개 마을에서 약 400곳의 와인너리가 연간 1500만병 정도를 생산한다. 몸집이 되다 보니 마케팅 활동도 활발했고, 그만큼 일찍부터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 있었다.

바르바레스코의 연간 생산량은 바롤로



(왼쪽부터)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누비올라 2017, 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투린 2017·2015, 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바노투 2017·2009, 펠리세로 모스카토 다스티 2025. /안상미 기자

의 3분의 1인 500만병에 그친다. 200여 생산자가 있지만 주요 20곳이 그 절반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나머지 180곳은 연간 1만 병 이하를 만든다. 그러니 와인을 알리는 활동도 극히 제한적이었고, 바르바레스코 와인의 진수를 경험하기도 힘들었다.

와인 스타일 역시 같았다. 바롤로가 단단한 타닌을 바탕으로 강한 구조감과 장기 숙성력을 내세웠다면 바르바레스코는 상대적으로 섬세한 타닌과 우아함이 특징이다. 바롤로를 ‘와인의 왕’, 바르바레스코를 ‘와인의 여왕’이라 부르는 것도 그래서다.

지오르지오는 “우아하고 더 접근성이 좋은 것이 바르바레스코 와인”이라며 “현재 글로벌 와인 시장의 트렌드에도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1세대인 할아버지도 포도를 재배했지만 가문의 이름을 걸고 와인을 내놓기 시작한 것은 2세대가 경영을 맡은 1960년부터다. 지오르지오는 3세대다. 세대를 거치며 5ha의 포도밭은 45ha까지 늘어났다.

그는 “펠리세로는 테루아가 그대로 드러나는 와인을 만들도록 접근한다”며 “포도밭이 위치한 언덕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펠리세로 와인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와인의 여왕이란 애칭에 딱 맞는 ‘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누비올라 2017’부터 시작한다. 누비올라는 지금의 네비올로를 말한다. 1330년에 당대 최고의 포도 품종으로 누비올라가 소개됐다. 6곳의 작은 구획을 섞어 만들었는데 바르바레스코 네비올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잘 익은 자두같은 과일향과 꽃향에 타닌은 부드럽다.

‘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투린’은 2017 빈티지와 2015 빈티지를 비교 시음한다. 투린은 포도밭 이름으로 바위가 많고 언덕에서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했다. 와인에는 이 환경이 그대로 녹아들어가 돌미네랄이 느껴지고, 허브향과 함께 타닌 존재감도 여전했다. 10년 안팎으로 숙성됐지만 산도와 구조감 모두 정제해 향후 10년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

‘펠리세로 바르바레스코 바노투’는 2017 빈티지와 2009 빈티지의 비교다. 바노투는 1세대 할아버지 지오르지오 펠리세로의 애칭이다. 절제된 과실향 대신 장미와 민트, 캐모마일 같은 허브향이 가득 채워지고, 좋은 산도에 두께감 있는 벨벳같은 타닌이 얹혀졌다.

/smahn1@metroseoul.co.kr



metro

문화 단신

단독 콘텐츠에 밤샘 상영까지… 영화관서 무더위 식히자

롯데시네마, K-애니메이션 2편 선배 메가박스, 돌비 특별관 액션대작 상영 CGV, 누워서 영화 보는 ‘올무비나잇’

올해 8월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극장가가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 등 주요 멀티플렉스 3사는 각기 독점 콘텐츠, 첨단 특화관, 심야 상영회 등 차별화된 무기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름 극장가 흥행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롯데, ‘롯데시픽’ & ‘광음시네마’

롯데시네마는 8월 단독 개봉작 라인업인 ‘롯데시픽’과 음향 특화관 ‘광음시네마’를 통해 시청각적 쾌감을 선사한다.

‘롯데시픽’은 탄탄한 서사의 K-애니메이션 2편을 선보인다. 역대 한국 애니메이션 1위 ‘마당을 나온 암탉’의 감독들이 기투한 ‘길 위의 문치’(8월 19일 개봉)는 도경수, 박소담, 박철민의 목소리 연기에 체코 오케스트라의 장대한 연주가 더해져 깊은 울림을 전한다. 이어 8월 26일에는 판타지 케이팝 애니메이션 ‘고스트 밴드’가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관객들을 찾는다.

초극저음 우파를 탑재한 ‘광음시네마’에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8월 5일 개봉)와 개봉 1주년을 맞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8월 26일 재개봉)이 상영되어 관객들에게 압



롯데시네마 롯데시픽 ‘길 위의 문치’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



CGV 올무비나잇.

도적인 사운드 체험을 선사한다.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 액션 쾌감

메가박스는 ‘돌비 시네마’와 ‘돌비 비전+애프트소’ 특별관 등 총 14개 지점에서 화려한 색감과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로 무더위를 날릴 액션 대작들을 상영한다.

현재 상영 중인 마블의 기대작 ‘스파이더맨: 브랜 뉴 데이’를 비롯해, 10년간의 장대한 여정을 담은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8월 5일 개봉), 아라크전 참전 실화를 다룬 ‘위페어’(8월 19일 개봉), 미지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그린 ‘오크스트리트의 마지막 날’(8월 26일 개봉)까지 짜릿한 모험이 관객들을 기다린다. 특히 ‘오디세이’ 관객들에게는 선착순으로 돌비 포스터가 증정된다.

◆CGV, 심야 축제 ‘올무비나잇’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관객들을 겨냥한 이색 심야 행사도 마련됐다. CGV는

오는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국 3개 토크시네마(용산아이파크몰, 압구정, 센텀시티)에서 ‘올무비나잇 with TEMPUR’를 진행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50분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편안한 템퍼 매트리스와 모션베드에 누워 ‘오디세이’와 ‘스파이더맨: 브랜 뉴 데이’를 연속 관람하는 심야 상영회다. 관람객에게는 템퍼 여행용 목 베개(14일)와 수면 안대(15일) 등 특별 굿즈도 증정되어 한여름 밤의 색다른 ‘극장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화관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 무더위와 열대야를 피하는 대표적인 피서지로 자리 잡았다”라며 “오직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콘텐츠와 프리미엄 체험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구 바꾼 혁신과 파괴의 ‘인류 문명사’

예일대 석좌교수, 수십년간 연구 담아 800년 역사 속 세 번의 전환점 분석

인류가 일궈낸 눈부신 번영은 어떤 선택과 대가 위에서 세워진 것일까. 환경사와 세계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수닐 암리스 예일대학교 역사학 석좌교수가 수십 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 『번영의 대가』가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몽골제국의 영토 확장부터 대항해시대, 산업혁명, 양자 세계대전을 거쳐 오늘날의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지난 800년의 인류 문명사를 ‘혁신과 파괴’라는 입체적 시선으로 재조명한다. 저자는 인류 문명이 지구 환경을 재편해온 과정을 세 번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첫 번째 전환으로는 ‘세계의 연결’을 지목했다. 13세기 유라시아를 횡단한 몽골 제국과 이후 대항해시대를 거치며 단절되어 있던 대륙과 생태계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아메리카의 작물이 유라시아로 건너가 인구 폭발을 이끌어낸 한편, 식민주의와 전염병, 대서양 노예무역,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인해 신대륙의 원주민 90%가 목숨을 잃고 자연이 자본의 논리에 편입되는 비극이 시작됐다.

두 번째 전환으로는 ‘자원의 수탈과 가속’을 지적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 질소비료 개발, 위성 발전에 힘입어 인류는 빈곤과



번영의 대가

수닐 암리스 / 추선영 옮김 / 이북 출판

기근을 극복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산림이 파괴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증했으며, 양자 세계대전을 치르며 가속화된 산업 생산 체계는 자연을 대대적으로 수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세 번째 전환으로는 ‘지구 체계의 재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대량생산-대량소비 사회는 인류에게 기아 극복과 수명 연장을 가져다주었지만, 아마존과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지구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저자는 방대한 1차 사료와 40여 개의 지도·사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세계사의 주류에서 소외되었던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이주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한다. 이를 통해 현대의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과거의 역사적 선택들이 축적된 결과임을 차분히 증명해 낸다.

576쪽. 3만2000원

메트로 한줄뉴스



▲ ‘심즈’ EA 새 주인에 사우디 국부펀드·트럼프 사위…기업가치 78조

▲ 美재무부,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이라크 항공사 제재 풀어 /사진 뉴시스

▲ 美국무부 “미국인 안전 위해 北여행금지 유지…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어”

▲ 중부 유럽도 41도 ‘펄펄’…거대 빙하 녹아 폭포수로

▲ ‘연료난’ 러시아, 환경 등급 낮은 휘발유 판매 허용

▲ “비만약으로 살 빼다가 사람이 죽었어요”…사망 연관 신고, 영국서만 153건